

광주 남구가족센터, 지역공동체 공간 자리매김

이용자 7만명 돌파…명절 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수요자 맞춰 서비스 제공…“주민들에게 행복 전파”

광주 남구 육아와 돌봄 공간인 남구 가족센터 연간 이용자가 7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중심의 지역 돌봄체계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 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남구 가족센터를 다녀간 방문객은 7만925명(일반 주민 4만78명·다문화 가족 3만847명)으로 집계됐다.

남구가족센터가 큰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유는 학가족화 시대 및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공동육아와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세상을 여는데 밀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에서는 가족관계와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까지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분야 프로그

램은 주민 3만2455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

이곳 센터에서는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목표로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 축제, 고향 방문, 명절 체험, 아동·청소년 클라이밍 강습 등 18개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가족 구성원의 부자와 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가족 돌봄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만 연간 1만 9142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그동안은 가족 보듬과 1인 가구 솔로 투게더,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발달 지원, 한부모가족 가사 서비스 등 7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광주 남구 육아와 돌봄 공간인 남구 가족센터 연간 이용자가 7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중심의 지역 돌봄체계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은 남구가족센터 프로그램 가족사랑의 날 모습.

서 가족 사랑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가족 특성에 따른 고종 상담과 초기 정착 등 11가지 가족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가족관계 개선 차원에서 부모·부부 역할 개선, 이중언어 교육 지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서

비스가 제공됐다. 가족생활 분야와 가족관계 분야 프로그램 이용자는 각각 1만3327명과 4240명이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가족센터는 가족 건강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도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원하는 복지 파트너로서 관내 주민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는 가족센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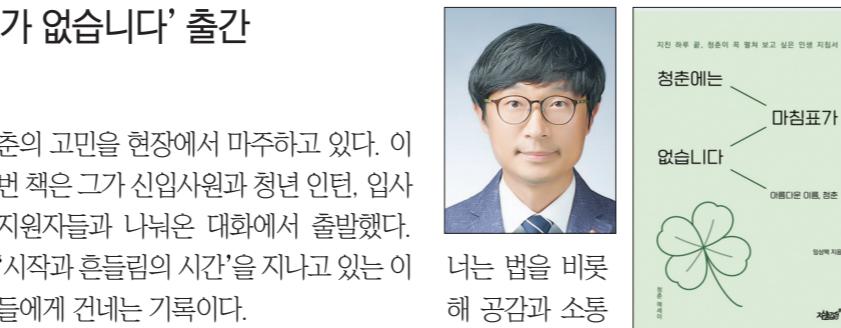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기업 인사팀장이 기록한 청춘의 시간

임상택 에세이 ‘청춘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출간

현직 도시가스사 인사(HR) 팀장으로 춘의 고민을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다. 이 조직과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온 임상택 작가(아호 무룡·舞龍)가 청춘의 시간을 다른 에세이 ‘청춘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를 펴냈다.

임 작가는 2002년 LG그룹 입사 이후 인사 실무와 조직문화 현장을 두루 거쳐 왔다. 현재는 해양에너지 인사팀장 겸 남부권 인사·노무 경영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조직과 사람, 그리고 일터 속 청



춘은 그가 신입사원과 청년 인턴, 입사 지원자들과 나눠온 대화에서 출발했다. ‘시작과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기록이다. 책은 ‘성과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먼저’라는 문장으로 문을 연다. 성취와 속도가 강조되는 시대지만, 저자는 조직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조직이라는 바다를 건

저자의 이력도 이해된다. 취미로 정약 대금을 연주하며 호흡과 여백 속에서 문장을 다듬어왔고, 와인 소믈리에 자격을 갖춰 “한 잔에 맛있는 향과 어운을 기록하며 문장을 빚는다”고 말한다. 일터의 언어와 예술적 감각이 책 전반에 은근히 스며 있다.

임 작가는 청춘을 미워하는 상태로 규정하지 않는다. “청춘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피어가는 중”이라는 시선은 위로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버티는 현실적인 용기와 내일을 향한 조용한 실행을 독자에게 권한다. 그는 “청춘에게는 끝을 찍는 마침표보다 숨을 고를 쉬운 마침표가 필요하다”며 “이 책이 지친 하루 끝에 다시 펴보고 싶은 인생의 작은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정성만(㈜피슨 회장 오른쪽 두 번째)이 광양 백운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성만(㈜피슨 회장),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지역 보육·인재 육성 관심

지고 있다.

광양시 육곡면 신금리에 위치한 ㈜피슨은 지난 1994년부터 파형강관, 강판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호주, 중동, 러시아 등 1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정성만 회장은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학생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광주 동구새마을회는 최근 병오년 동구민의 안녕과 희망찬 새 출발을 기원하는 ‘2026년 너릿재 해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구새마을회, 병오년 ‘너릿재 해맞이 축제’

등산객 2000명에 떡국 나눔

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너릿재를 찾은 등산객 2000여명에게 떡국과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며 이웃과의 저을 나눴다.

임택 동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의 꿈과 바람이 꽂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광주 동구새마을회 회장은 “병 오년 봄은 맑처럼 지역민 모두가 힘차게 도약해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루길 바란다”며 “동구새마을회 또한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은 ‘소원 향조 켜기’ 등 다채로운 프로

광주 119특수대응단장에 황인 소방장

“시민 안심·특수사고 대응에 최선”



황단장은 취임 첫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무등산국립공원 새해맞이 행사의 소방력 배치 현장에서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임무를 시작했다.

황인 광주119특수대응단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특수사고 대응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제공”

강호남 지리산전남사무소장 부임



종립 이행과 자연·문화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유관단체·사찰·환경단체 등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 소장은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지리산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에 지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속에서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승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글로벌광주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

개국 후 처음…문정 차장 수상



글로벌광주방송(구 광주영어방송)은 조직혁신과 방송 구조 개편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개국 이래 처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기관 명칭 변경과 조직 혁신, 방송 운영 체계 개편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경영기획팀 문정 차장이 수상했으며, 글로벌광주방송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글로벌광주방송은 기존 ‘GPN 광주영어방송’에서 ‘GGN 글로벌광주방송’으로 방송사명을 변경해 다국어·다문화 종합 미디어체널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영어 중심 편성에서 벗어나 영어 70%, 다국어 30%로 방송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다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개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과 정관 개정을 거쳐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과 공적 책임성도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정 차장은 “이번 표장을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 외국어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광주방송은 앞으로도 조직 혁신과 다국어 콘텐츠 확대를 통해 지역 기반 공공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조종훈 소방장

“열정 어린 체험교육으로 안전 소통”



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했던 조종훈 소방행정 실전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했다. 합리적인 업무 추진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화합의 조직문화를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조종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열정 어린 체험교육을 통해 타협 없이 찾아오는 위험 속에서도 시민에게 안전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는 제4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종훈 소방장(사진)이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조종훈 신임 관장은 지난 1993년

소방공무원에 입문해 다양한 재난 현

장과 행정 분야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구급대

장,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북부

소방서 재난대응과장, 광주소방안전

본부 구급팀장, 구조팀장 등을 역임

했다.

조 관장은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

과 체계적인 행정 수행 능력을 겸비